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정경숙¹, 오은주^{2*}

¹부산과학기술대학교, ²진주보건대학교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Kung Sook Jung¹, Eun Ju Oh^{2*}

¹Dpar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²College of Nursing, JINJU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B, C에 소재하는 간호대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test, ANOVA분석, Scheffe test 사후검정,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간호 전문직관은 3.76점, 간호사이미지 3.78점, 셀프리더십은 3.87점이었으며, 간호사이미지와 간호 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이미지 중 간호사 자질, 간호사 사회참여, 간호사의 대인관계와 간호 전문직관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셀프리더십 설명력은 61.6%로 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 및 자질에 대한 교육 강화와 정책적 역할 참여 등 사회참여경험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he nurse's image influenced self-leadership.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99 nursing students from October 1 to October 31, 2019. Data were analyzed on the SPSS 2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nursing professionalism level was 3.76, the nurse's image level was 3.78 and the self-leadership level was 3.87. Self-leadership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r=.39$, $p<.001$) and nurse's image ($r=.78$, $p<.001$).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were qualifications, social participation, social awar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as subcompon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he nurse's image, which had an explanatory factor of 61.6%.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for reinforcement on the roles and qualifications of a nurse in the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as well as enhancement of social participation experiences such as participation in policy roles to increase the level of self-leadership.

Keywords :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s Image, Self-leadership, Nursing Stud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rresponding Author : EunJu OH(Jin Ju Health College)

email: eun-ju218@hanmail.net

Received June 25,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Revised July 19,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임상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한국 간호 평가원에서는 간호 교육 과정에서 핵심역량으로 간호리더십의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대학생 시기는 성인 초기의 자율적인 시기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고 학업에서 팀 활동, 다양한 조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는 과정이므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리더 할 수 있어야 한다[1]. 또한, 졸업 후 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간호 임상현장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상태파악과 직접간호 활동 수행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리더십의 발휘가 매 순간 요구된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사고방식,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을 지닌 리더십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한 내적탐구과정이다[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 주도 학습과 학습몰입을 향상시키고 대학 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며[3-5], 임상 실습 몰입과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6,7], 이론교육과 더불어 임상현장실습을 함께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증진 시켜야 할 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셀프리더십을 가진 직원은 자율성이 높고, 업무 결정 권한이 높아 정신적 피로가 낮고, 번 아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8].

또한 간호사의 직무몰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셀프리더십으로 나타나[9],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간호사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가치관과 직업윤리, 사회적 위치와 미래와 전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간호전문직관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 활동 과정이나 간호사의 직분에 대한 직업적인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확고한 이념과 목표로 간호 활동을 하게 함으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바람직한 간호전문직의 가치관 확립이 요구된다[10].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대학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사이미지, 셀프리더십, 임상 실습 교육환경, 문화적 역량 등이 보고되고 다

[11-14]. 그러나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12]외에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자기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인 셀프리더십에 간호전문직관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15].

간호사 이미지는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간호와 간호사의 모습에 대한 신념, 관념 및 피 인상의 총합을 근거로 간호사에 대해 갖는 전문적, 전통적, 사회적인 인상이나 신념, 간호직에 대한 전망을 말한다[16].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전공에 만족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 실습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가 되고 있으나[12,14,17], 간호사이미지의 구체적인 요인들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사의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이고 간호에 대한 정책 결정, 학생들의 진로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8] 간호사 이미지를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2].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12] 간호사이미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체계적인 중재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으로 임상수행능력, 자기주도 학습, 학업적 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수행되었으나[3-5]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요인들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의 구체적인 요인들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간

호사이미지, 셀프리더십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B시, C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양측검정),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수 13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수는 189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2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응답이 부적절한 11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99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Prussia, Anderson과 Manz(1998)[19]가 개발한 도구로, 총 20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8 이었다.

2.3.2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이미지는 Lee 등이[20] 개발하고 Jang[21]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간호사의 자질 9문항, 간호사의 역할 7문항, 간호사의 사회참여 7문항, 간호사의 대인관계 6문항으로 총 29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Jang의 연구[21]에서 Cronbach's= .91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5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등이[10] 개발한 도구를 Lee[22]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4문항, 간호계의 역할 3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26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92, Lee의[22] 연구에서 Cronbach's= .91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8 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간호학과와 학과장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에서 명을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이 끝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간호사이미지, 간호 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간호사이미지,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urbin-Watson으로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하였으며,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잔차 분석을 통해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및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확인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과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예정이며, 보관 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는 분쇄하여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마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86.4%, 학년은 2학년 45.5%로 가장 많았다. 나이는 21세 이하가 29.8%가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68.7%이었다. 학업성적은 '중'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75.4%이었고, 취업률이 높아서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다. 학과 생활에서 어려움은 학과 수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3.3%이었으며, 친척 중 간호사가 있는 대상자가 41.4%이었다. 임상 실습은 60.8%가 경험하였으며, 동아리는 62.1%가 활동하고 있었다. 대학 생활 만족은 54.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간호사이미지, 간호 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평균평점 3.87 ± 0.46 점이었다.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평균평점 3.78 ± 0.36 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에서 간호사의 자질이 4.16 ± 0.5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9)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7	13.6
	Female	172	86.4
Academic grade	2nd	90	45.2
	3rd	64	32.2
	4th	45	22.6
Age(year)	≤21	59	29.7
	22	45	22.6
	23	45	22.6
	≥24	50	25.1
Religion	Yes	63	31.7
	No	136	68.3
School Record	High	20	10.0
	Moderate	150	75.4
	Low	29	14.6
Department Selection Motive	Job after graduation	95	47.7
	aptitude, interest	58	29.1
	entrance examination score	4	2.1
	Parents or relatives	25	12.6
	Etc	17	8.5
Difficult in department life	Friendship	14	7.0
	Department class Contents	126	63.3
	Clinical Practice	39	19.6
	Etc	20	10.1
A nurse in the Family	Yes	81	40.7
	No	118	59.3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21	60.8
	No	78	39.2
Group Activity	Yes	124	62.3
	No	75	37.7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74	37.2
	Moderate	107	53.8
	Unsatisfied	18	9.0

로 가장 높았다. 간호 전문직관 정도는 평균 평점은 3.76 ± 0.39 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위영역 중에서 간호의 전문성이 4.07 ± 0.4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Self-leadership, Nurse's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N=199)

Variables	M±SD	Min-Max	
Self-leadership	3.87 ± 0.46	2.35-5.00	
Nurse's Image	3.78 ± 0.36	2.31-4.48	
	The qualification of Nurse	4.16 ± 0.50	2.11-5.00
	The role of Nurse	3.65 ± 0.40	2.46-4.43
	The social participation of Nurse	3.87 ± 0.46	2.14-5.00
Nursing Professionalism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3.26 ± 0.32	2.50-4.33
	3.76 ± 0.39	2.54-4.77	
	Professional self-coconcept	3.76 ± 0.48	2.22-5.00
	Social Awareness	3.70 ± 0.54	1.75-5.00
	Nursing expertise	4.07 ± 0.44	3.00-5.00
Nursing role	3.51 ± 0.33	2.67-4.67	
	Uniqueness of Nursing	3.70 ± 0.64	2.00-5.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간호사 이미지,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동아리 활동($t=2.13, p=.035$), 대학 생활 만족도($F=8.2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만족' 군이 '보통' 군, '불만족' 군보다, '보통' 군이 '불만족'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이미지는 학과선택 동기($F=4.11, p=.003$), 대학 생활 만족도($F=7.42,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과선택 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군이 '가족

이나 타인의 권유' 군 보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만족' 군과 '보통' 군이 '불만족' 군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간호 전문직관은 연령($F=5.60, p=.001$), 학과선택 동기($F=3.06, p=.018$), 대학 생활 만족도($F=5.7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21세 이하' 군과 '22세' 군이 '23세' 군과 차이를 보였으며, 학과선택 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군이 '가족이나 타인의 권유' 군보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만족' 군이 '보통'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99)

Variables	Categories	Self-leadership		Nurse's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 or F (p) Scheffe's	Mean(SD)	t or F (p) Scheffe's	Mean(SD)	t or F (p) Scheffe's
Gender	Male	3.83(.56)	-0.54	3.74(.39)	-0.57	3.83(.40)	1.11
	Female	3.88(.44)	(.590)	3.78(.35)	(.568)	3.74(.39)	(.270)
Academic grade	2nd	3.88(.37)		3.80(.30)		3.74(.41)	
	3rd	3.84(.47)	0.50	3.74(.38)	0.58	3.70(.35)	2.75
	4th	3.92(.57)	(.606)	3.80(.43)	(.562)	3.87(.39)	(.067)
Age(year)	≤21	3.88(.37)		3.80(.27)		3.67(.41)	
	22	3.80(.44)	1.42	3.82(.38)	0.90	3.64(.31)	5.36**
	23	3.98(.53)	(.237)	3.84(.38)	(.444)	3.09(.40)	(.001)
	≥24	3.83(.49)		3.73(.40)		3.83(.39)	a,b<c
Religion	Yes	3.90(.47)	0.57	3.80(.34)	0.68	3.76(.41)	0.10
	No	3.80(.45)	(.573)	3.77(.36)	(.499)	3.76(.39)	(.918)
School Record	High	3.77(.51)		3.67(.39)		3.78(.40)	
	Moderate	3.88(.45)	0.59	3.79(.36)	1.10	3.79(.39)	2.84
	Low	3.87(.43)	(.557)	3.77(.27)	(.335)	3.60(.36)	(.061)
Department Selection Motive	Job after graduation	3.88(.44)		3.79(.31)		3.72(.36)	
	aptitude, interest	3.96(.40)		3.85(.31)	4.11*	3.89(.05)	3.20*
	entrance examination score	3.68(.21)	2.19	3.54(.29)	(.003)	3.71(.22)	(.014)
	Parents or relatives	3.66(.57)	(.072)	3.55(.50)	b)d	3.60(.41)	b)d
Etc	3.85(.48)		3.84(.34)		3.75(.51)		
Difficult in department life	Friendship	3.74(.47)		3.69(.32)		3.87(.36)	
	Department class Contents	3.90(.44)	0.68	3.80(.32)	0.63	3.75(.41)	0.98
	Clinical Practice	3.86(.52)	(.568)	3.73(.48)	(.599)	3.69(.35)	(.403)
Etc	3.80(.34)		3.78(.30)		3.83(.41)		
A nurse in the Family	Yes	3.84(.45)	-0.97	3.74(.35)	-1.3	3.77(.36)	0.35
	No	3.90(.46)	(.331)	3.80(.36)	7(.173)	3.75(.42)	(.729)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87(.51)	-0.17	3.77(.40)	-0.71	3.79(.39)	1.46
	No	3.88(.35)	(.867)	3.80(.28)	(.482)	3.71(.40)	(.146)
Group Activity	Yes	3.93(.45)	2.13	3.82(.35)	1.84	3.80(.40)	1.85
	No	3.78(.45)	(.035)	3.72(.36)	(.068)	3.69(.38)	(.066)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4.00(.40)	8.28***	3.86(.31)	7.42**	3.68(.41)	7.52***
	Moderate	3.83(.44)	(<.001)	3.76(.32)	(.001)	3.68(.37)	(<.001)
	Unsatisfied	3.55(.59)	a)b<c	3.51(.54)	a,b<c	3.68(.41)	a)b

*p<.05 **p<.001 ***p<.001

3.4 셀프리더십,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사이미지($r=.78, p<.001$), 간호전문직관($r=.3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 Self-leadership,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99)

Variables	Self-leadership	
	r(p)	
Nurse's Image	.78(<.001)	
The qualification of Nurse	.74(<.001)	
The role of Nurse	.61(<.001)	
The social participation of Nurse	.72(<.00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37(<.001)	
Nursing Professionalism	.39(<.001)	
Professional self-coconcept	.20(.004)	
Social Awareness	.29(<.001)	
Nursing expertise	.43(<.001)	
Nursing role	.15(.031)	
Uniqueness of Nursing	.48(<.001)	

3.5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대학 생활 만족도를 더미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02로 나타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 한계가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Self-leadership (N=199)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5	.25		0.60	
The qualification of nurse	.39	.07	.43	6.06	<.001
The social participation of nurse	.32	.07	.32	4.43	<.001
Social awareness	.10	.04	.12	2.64	.009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15	.07	.11	2.27	.024
Tolerance= .377~.946 VIF=1.060~2.654 Dubin Watson=2.029					
Adj. R ² = .616 F=80.29 p<.001					

0.1 이하이거나 VIF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사이미지 중 간호사 자질($\beta=.43, p<.001$), 간호사의 사회참여($\beta=.32, p<.001$), 간호사의 대인관계($\beta=.11, p=.024$)가, 간호전문직관 중 사회적 인식($\beta=.412, p=.009$)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61.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F=80.29, p<.001$)(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 셀프리더십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함양시키는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1~5점 척도에 평균 3.7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Jung의 연구[12]에서 3.71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의 연구[11]에서 3.66점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 등의[14] 3.59점보다는 높은 결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Cho 등의[14] 연구에서는 전체학년이 대상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1학년이 포함되지 않았고, 임상 실습에 만족할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12]를 보았을 때 기본간호학실습이나 임상 실습을 경험한 2, 3, 4학년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 하위영역의 평균은 간호의 전문성이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전문직 자아개념 3.76점, 사회적 인식 3.70점, 간호의 독자성 3.70, 간호 실무역할 3.51점 순이었다. 이는 Kim 등의 연구[13]에서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고, 간호의 독자성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높았던 Park 등의 연구 결과[11]와는 차이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 활동 과정이나 간호사의 직분에 대한 직업적인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 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전문직관에서 간호의 독자성 영역과 간호의 실무역할이 낮게 나타난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에서 주로 관찰 위주의 간호 수행을 함으로써 간호업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13] 보고 체계적인 간호현장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경험함

로써 간호의 독자성 영역과 간호 실무역할을 낮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임상현장실습 동안에는 간호의 독립적인 영역과 간호의 실무 활동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론적인 간호 교육과정에서는 전문화된 다양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1~5점 척도에 평균 3.78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Lee[22]의 3.75점, Cho 등의[14] 3.65점과 비슷하였다.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영역의 평균을 살펴보면 간호사 자질 4.16점으로 가장 높고, 간호사 사회참여 3.87점, 간호사 역할 3.65점, 간호사의 대인관계 3.26점 순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2] 간호사 자질 3.94점, 간호사 사회참여 3.75점, 간호사 대인관계 3.74점, 간호사 역할 3.50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순서에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영역 중 간호사 자질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간호사는 헌신적이며, 신뢰와 정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단정한 간호사임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이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경험과 정보에 따라 변화되는 속성이 있는데[17]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의 기본 역할과 사명감을 중요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1~5점 척도에서 평균 3.87점으로 3, 4학년 및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Jong 등의[12] 3.85점과 Kim 등의[13]의 3.7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의 연구[23]에서 3.44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았다. 임상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3.4학년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리더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제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고 경험함에 따른 결과로 사료 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나이, 학과선택 동기, 대학 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1살이나 22살보다 23살이, 학과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가 맞은 경우, 대학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선택이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23].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입학 동기에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 미래 간호사로서 비전 제시를 통해 간호

학에 몰입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다양한 방안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학과선택 동기가 취미와 적성에 맞을 때, 대학 생활 만족도가 만족일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17]에서 학과선택 동기가 적성에 맞는 경우 간호사이미지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여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임상 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 간호사이미지가 높았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간호학과의 많은 이론적 수업에서 간호대학생들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례를 통한 교육질 개선을 통해 학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대학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아리 활동을 할수록, 대학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셀프리더십이 높았던 연구[23,24]와 유사하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았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1,7]. 그러나 학년이 낮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았던 연구[23]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았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4,13,25]. 대학 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은 또래 집단에서 발생하는 책임감과 조직구성으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동성과 리더, 조화를 통해 셀프리더십이 함양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간호대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의 꼭 짜여진 교육과정일지라도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 하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사이미지 하위요인인 간호사 자질,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의 사회참여, 간호사의 대인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 하위요인인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독자성 간에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이미지가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셀프리더십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26]. 그러나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요인,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의 관련성 연구는 활발하지 않아 향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이미지 중 간호사 자질로 확인되었다. 셀프리더십 영향요인으로 간호사이미지의 세부

요인을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사이미지 형성은 임상 실습 중 병원 내 간호사 모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27]를 볼 때 간호사의 역할, 자질 등이 학업 중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간접 경험한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경험한 실습이 보다 직접적으로 간호사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보고를 통해[28] 임상 실습 시 간호대학생에게 보여주는 간호사의 활동과 모습이 간호 대학생으로 하여금 간호사 자질을 인식하고, 간호사이미지를 확립함으로써 자신의 역할과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역할도 촉진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이미지 중 간호사의 사회참여로 나타났다.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요인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미흡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으나, 간호사가 병원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전문가로서 지식을 가지고 높은 지적 수준으로 활동하는 사회참여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의 권장과 간호정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대학생도 정책참여현장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인식으로 확인되었다. Jung의 연구[12]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의 전문성이 가장 영향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는 사회적 인식이 좋고, 전문인으로 존경받으며,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드높이는 영향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간호사의 사회활동 및 참여에 대한 반복 적인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이미지 중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셀프리더십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29]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임상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임상 수행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30]임을 알고, 대인관계 능력향상을 위한 토의, 역할극, 다양한 학습방법,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함양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하위요인들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이미지 중 간호사 자질, 간호사의 사회참여, 간호전문직관의 사회적 인식, 간호사이미지의 대인관계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61.6%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의 구체적인 하위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하며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 한다.

References

- [1] M. S. Kim,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3, NO.2, pp.184-193, May.2017.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7.23.2.184>
- [2] David, F. E, Vivek. P. " Self-Leadership and Burnout: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Vol.5. No.9, 2014.
- [3] E. S. Lee, E. J. Bong,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107-114, 2017.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107>
- [4] S. E. Jeong, J. H. Ha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leadership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5, NO.4, pp.393-404, 2019.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9.25.4.393>
- [5] J. S. Jeong,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253-26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53>
- [6] E. J. Jo, J. M. Kang, K. M. Lim, "Influence of Clinical

-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3, pp.94-10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5.121>
- [7]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2, pp.216-225, 2011.
- [8] Manz. C. C, Manz. K. P., “Strategies for facilitating self-directed learning: a process for enhancing human resource developmen”.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2, NO.1, pp.3-12, 1991.
DOI: <http://dx.doi.org/10.1002/hrdq.3920020103>
- [9] S. M. Kwon, M. S. Kwon, “Effect of Nurse’s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Job Involve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4, pp.284-292,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4.284>
- [10]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Academy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 [11] M. J. Park, H. N. Yoo,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38-47, 2019.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9.25.1.38>
- [12] K. I.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11, October, 2018
- [13] C. H. Kim, J. Y. 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5-16, 2019.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9.25.1.5>
- [14] H. H. Cho, N. H. Kim, “Relationship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548-557, 2014.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4.20.4.548>
- [15] E. H. Kim,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4, NO.1, pp.532-541, 2016.
DOI: <https://doi.org/10.15205/kschs.2016.4.1.532>
- [16] . P. A. Kalisch, B. J. Kalisch, “Careerrist Toward an New Ideal. The Changing Image of the Nurse”, Addonis-Wesley pub, pp. 179-193, 1987.
- [17] J. Y. NO, S. J. Park, D. Y. Ba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 Efficacy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8, No.2, pp.88-94, 2012.
- [18] B. J. Kalisch, S. Begeny, S. Neumann,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ing Outlook, Vol.55, No.4, pp.182-188, 20007.
DOI: <https://doi.org/10.1016/j.outlook.2006.09.002>
- [19] G. E. Prussia, J. S. Adeerson & C. C. Manz,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 The mediation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19, pp.523-538, 1998.
- [20] H. R. Lee, K. O. Cho, J. E. Ko, M. R. Hong, S. Y. Kim, “The Image of nurses”, Journal of Kyunghee University, Vol.15, pp.45-65, 1992.
- [21] S. H. Jang, “Survey on Nurse’s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1998.
- [22] S. R. Lee, “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2011.
- [23] H. J. Park, “Correlation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227-236, 2015.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5.21.2.227>
- [24] H. S. Kang, Y. Y. Kim,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617-625,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5.617>
- [25] J. Y. Cho, I. S. Bin,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Locus of Control”, Journal Korean Academic Nursing Adm, Vol.24, No.3, pp.182-192, 2017.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3.182>
- [26] S. H. Han, “Effecting Factors Nurse Imag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1, pp.789-798,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imahs.2019.9.11.071>
- [27] J. H. Lee, “Change Nursing College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Nurses’ Image and leadership after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ail&Applied Science, Vol.35, No.1, pp.122-130, 2018.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18.35.1.122>
- [28] H. J. Lee,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0, NO.2, pp.129-135, 2014.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369>
- [29] D. R. Kim, H. N. Lim, J. I. Kim,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3, pp 369-377,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369>

- [30] Y. K. Yang,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y fundam nursing. Vol.25, No.2, pp. 99-108, 2018.
DOI: <http://doi.org/10.7739/jkafn.2018.25.2.99>
-

정 경 숙(Kyeong Sook-Jeong)

[정회원]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 중앙

오 은 주(Eun Ju Oh)

[중신회원]



- 2006년 8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조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모유수유, 여성건강증진, 다문화, 간호교육